

## 동북아에서의 공급망 금융의 과제\*

박 환 일\*\*

### 【국문 초록】

공급망 금융이란 제조업체의 공급망에 금융을 연계하여 그때그때 적절한 자금지원, 위험관리, 대금지급 등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공급자와 구매자는 경쟁관계가 아닌 협력관계에 서게 된다. 한국에서는 기업들이 공급망 관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것과 달리 금융권에서는 공급망 금융에 대한 준비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여건은 이미 성숙되어 동산채권담보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 협력업체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도 정착되었다.

공급망 금융의 부진 사례에서 오히려 공급망 금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공급망 관리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운용한다면 공급망에 관한 정보의 사각지대를 피할 수 있고 단계별로 적절한 금융지원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공급망 참가자들 사이에 공유될 경우 정보의 미비점을 악용한 사례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셋째,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 사업을 벌일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급망 금융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용자들이 실감할 수 있는 선순환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공급망 관리의 플랫폼을 통해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운용하고, 거래은행은 해당 기업에 대해 단계별로 단기 운영자금이나 장기 설비자금 또는 투자 등 적절한 파이낸싱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앞서 말한 동산채권담보법에 의하여 기계설비나 재고자산,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여 중

† 논문제출일: 2016. 10. 19. 심사개시일: 2016. 10. 28. 게재확정일: 2016. 11. 16.

\* 본고는 “한·중 은행산업의 변화, 혁신 및 발전”을 주제로 2016년 9월 2일 부산에서 열린 은행연합회 주최 2016 한·중 은행산업 발전방향 포럼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한 것이다. 국내 학계에 생소한 공급망 금융에 관한 연구발표의 기회를 주고 학술지 발표를 허락해주신 은행연합회 측에 감사드린다.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은 조건의 은행대출을 받게 하려면 미국에서와 같이 담보물 평가회사, 담보자산의 현황 조사회사, 담보물의 처분을 대행하는 담보물 처분회사가 필요하다. 이 기회에 동산 담보물에 전자식별표를 붙여 수집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다면 담보물의 공정한 평가, 원매자 물색에 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반의 물류관리를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 국경을 넘는 서비스의 확장도 가능하다고 본다.

공급망 금융의 플랫폼을 구축할 때에는 모바일 폰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빅데이터 및 핀테크 활용 가능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인다면 머지않아 공급망 금융을 매개로 동북아 3국에 디지털 단일시장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주제어 : 공급망 관리, 공급망 금융, 공급자, 중소기업, 협력관계, 공급망 금융 플랫폼, 자산담보대출, 전자식별표, 동북아 디지털 단일시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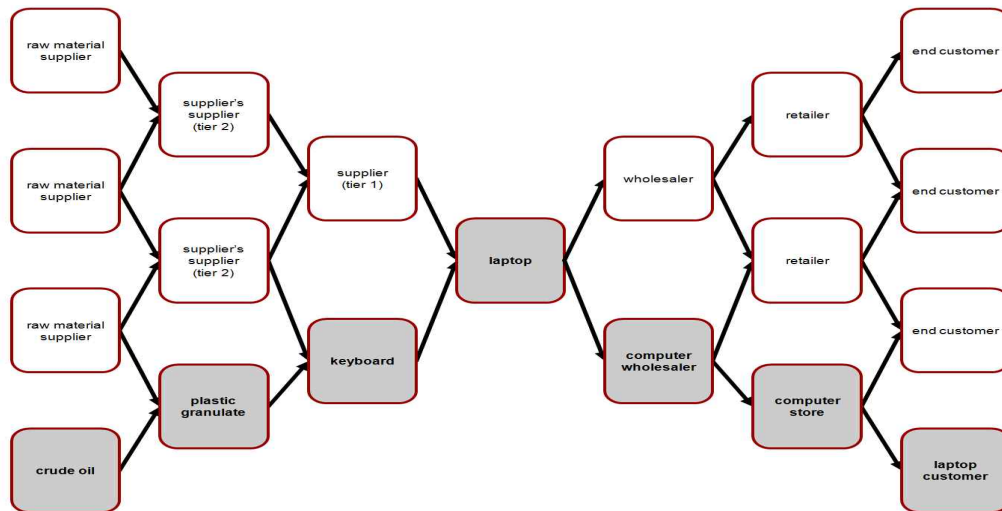
- |                         |                        |
|-------------------------|------------------------|
| I. 머리말                  | 2. 한국에서의 공급망 금융의 실패 사례 |
| II. 공급망 금융의 개념과 특색      | IV. 공급망 금융의 활성화 대책     |
| 1. 공급망 금융의 개념           | 1. 공급망 금융의 활성화 요인      |
| 2. 공급망 금융의 특색           | 2. 공급망 금융의 영역 확장       |
| III. 공급망 금융과 금융기관의 역할   | V. 맺음말                 |
| 1. 공급망 금융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역할 |                        |
- 

## I. 머리말

공급사슬(supply chain) 또는 공급망이란 용어가 최근 기업관련 보도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최근 배터리 폭발 사고를 겪은 모 전자업체가 복수의 휴대폰 배터리 공급업체 중에서 문제가 생긴 공급자 대신 즉각 다른 공급자로부터 배터리를 추가로 공급받음으로써 생산차질을 막을 수 있었다는 식이다. 이와 같이 신제품을 출시할 때에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공급망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SCM)를 철저히 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다.

공급망 관리에 대하여 공급망관리 전문가위원회(Council of Supply Chain Management Professionals: CSCMP)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 바 있다. “공급망 관리란 거래처 물색에서 자재 조달, 가공·생산, 그리고 유통·물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활동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각 단계별로 공급자, 중개자, 제3의 서비스 제공자, 고객이 서로 협력하고 조정하는 것을 망라하며, 본질적으로는 사내외에서 수요·공급의 관리를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sup>1)</sup>

공급망은 제조업체의 라이프사이클에 비춰보면 더 이해하기 쉽다. 즉 어느 신상품을 출시하기로 했을 때 제품 수요를 예측하고, 자재·부품을 조달하여 제조 공정에 투입한다. 이때 비중이 큰 공급자의 경우 공장 화재와 같은 유사시에 대비하여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생산된 제품은 재고자산으로 창고나 물류센터에 보관했다가 공급망을 통해 수요처에 배송하며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인도하게 된다.



<그림 1> 공급 사슬의 모양

1) Supply Chain Management encompasses the planning and management of all activities involved in sourcing and procurement, conversion, and all logistics management activities. Importantly, it also includes coordination and collaboration with channel partners, which can be suppliers, intermediaries, third-party service providers, and customers. In essence, supply chain management integrates supply and demand management within and across companies. Supply Chain Management is an integrating function with primary responsibility for linking major business functions and business processes within and across companies into a cohesive and high-performing business model. It includes all of the logistics management activities noted above, as well as manufacturing operations, and it drives coordination of processes and activities with and across marketing, sales, product design, finance and information technology. <<https://cscmp.org/supply-chain-management-definitions>>

자료: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Supply\\_chain](https://en.wikipedia.org/wiki/Supply_chain)>

이것을 노트북을 생산·판매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그림 1>과 같이 원자재 구매에서 제조, 판매에 이르기까지 연쇄적인 사슬 모양을 이루게 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공급망 관리에 필수적인 자금조달과 비용지급, 투자 등 공급망 금융(supply chain finance: SCF)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 특색과 함께 구성요소를 분석하기로 한다. 국내 기업들이 동북아시아에서 원자재 조달 및 생산물 공급의 사업 파트너인 중국·일본의 기업들과 어떠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급망 금융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살펴본 다음 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 II. 공급망 금융의 개념과 특색

### 1. 공급망 금융의 개념

원활한 공급망 관리(SCM)를 위하여 제조업체는 원자재를 구매할 때 대금을 바로 지불하고 공급자로부터의 적시의 부품조달을 위해 부품창고를 새로 짓는다. 또한 생산판매 단계에서도 생산공정 및 재고자산의 관리 및 회계처리가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서 공급망 관리에 있어서 돈과 관련된 모든 것이 공급망 금융(SCF)의 관리대상인 것이다.

공급망 금융은 유로은행협회(EBA)<sup>2)</sup>가 새롭게 정의한 것처럼 파이낸싱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금융상품과 관행, 기술을 이용하여 운영자금과 유동성 관리를 공급망 과정과 연계하고 사업파트너와의 협업을 위해 최적화하는 것”을 말하며, 물리적

2) 파리에 본부를 둔 유로은행협회(Euro Banking Association)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기존 무역금융을 발전시킨 전자송장(E-invoicing)의 보급에 힘쓰다가 2012년부터는 공급망 실무그룹(Supply Chain Working Group)으로 개편하여 물리적 공급망에 연계한 새로운 금융방식의 개발에 노력해 왔다. 그 일환으로 2013년 5월 「공급망 금융에 관한 가이드」를 처음 발표하고 공급망 금융의 생태계와 공급망 관리의 촉진·장애요인을 분석하였으며, 관련용어의 표준화를 꾀하는 동시에 시장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소와 규제 이슈에 대하여 논의를 벌였다. <<https://www.abe-eba.eu/>> 웹사이트에서 Thought Leadership > Supply Chain을 차례로 검색

공급망에서 일어난 사건이 금융 공급망에 자금지원, 위험관리, 지급 등으로 개입하게 되며, 이러한 사건을 추적하고 통제하는 첨단기술은 공급망 금융을 자동화하는 기회를 창출한다.<sup>3)</sup>

그러므로 공급망 금융에서는 이와 관련된 금융상품을 다루고 새로 개발함은 물론 원자재·생산물품의 공급을 둘러싼 생태계(ecosystem)의 조성, 공급망과 관련된 위험관리 내지 범규범을 검토 대상으로 한다.<sup>4)</sup> 우리나라는 공급망 관리와 관련하여 이웃 나라인 중국, 일본의 기업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국제적인 이슈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제조업체가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자재를 구매할 때에는 다양한 형태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진다. 예컨대 원자재·생산설비를 구매할 때 은행의 시설자금·운영자금 대출이 행해지는데, 구매자금 대출 외에도 일반 기계류는 소유권유보부 매매, 생산설비는 금융리스를 이용하기도 한다. 협력업체의 입장에서는 원청사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B2B대출)을 받거나, 또는 전자어음을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한 후에는 그 매출채권을 팩토링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가 많다.<sup>5)</sup> 국제적으로는 수출입에 따른 신용장 거래(documentary trade finance)가 많이 행해진다.

둘째, 공급망 금융의 대상이 대부분 중소기업에 속하는 협력업체라는 점에서 G20 차원에서 공급망 금융에 주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확대를 위해 담보법제를 개혁하고 공급망 금융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sup>6)</sup> 이미 한국에서는 중소기업·벤처기업들이 동산 및 매출채권,

3) The use of financial instruments, practices and technologies to optimise the management of the working capital and liquidity tied up in supply chain processes for collaborating business partners. SCF is largely 'event-driven'. Each intervention (finance, risk mitigation or payment) in the financial supply chain is driven by an event in the physical supply chain. The development of advanced technologies to track and control events in the physical More clarity is needed on definitions of Supply Chain Finance and its components supply chain creates opportunities to automate the initiation of SCF interventions. EBA Supply Chain Working Group, *Supply Chain Finance: EBA European market guide* (Version 2.0), June 2014, p.44.

4) *Ibid.*, pp.4-7.

5) EBA Market Guide에 의하면 구매기업의 지급채무(Accounts Payable)를 평가하여 공급자에게 금융지원하는 것을 Approved Payables Finance 또는 逆팩토링이라 한다. 공급자의 매출채권(Accounts Receivable)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Receivables Purchase, Invoice Discounting이라 부른다. *Ibid.*, p.45.

6) Global Partnership for Financial Inclusion, "G20 Action Plan on SME Financing", Ankara, Turkey, 2015. <<http://www.g20.org/English/Documents/PastPresidency/201512/P020151228341855289327.pdf>>

지재권을 담보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채권담보법”)이 2010년 6월 제정되었다.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2년 6월 부터는 동산, 매출채권에 대한 전자등기를 통한 동산·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공급망 금융이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행해지고 있다.<sup>7)</sup> 어느 한편은 희생하고 다른 편을 옹호하는 상생협력이 아니라 진정한 협력(collaboration), 상호의 가치와 이익 증대를 꾀하는 바람직한 생태계의 조성은 그 다음의 과제라고 하겠다.

셋째, 동북아 3국 기업의 상호관계에 비추어 각국에 고루 발달한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자동화(예컨대 electronic invoicing)<sup>8)</sup>와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추진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국경을 넘는 3국 간 전자상거래와 부품과 중간재·완성품을 주고받는 동북아 수출입 교역을 촉진하는 것은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 2. 공급망 금융의 특색

위와 같은 관점에서 공급망 금융은 일반 기업금융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색이 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체는 제조공정에 원자재를 투입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시장(수요처)에 운반하여 판매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경우 제품의 적기 공급을 위해서는 대량의 수요처 부근에 물류창고를 만들어야 하는데 해당 제품이 반드시 필요한 수요처와 공동으로 물류창고를 건설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조업체와 수요처가 경쟁적(competitive) 관계가 아닌 협동적(collaborative) 관계를 맺게 된다. 해당 제조업체가 주요 부품을 조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협동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얼마나 이익을 많이 내느냐 하는 수익성(profitability)보다도 얼마나 신속하게 부품과 자재를 운용하느냐 하는 유동성(liquidity)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7) 공급망 금융의 전세계적 시장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2,750억 달러(약 310조 원) 수준으로 매년 10%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시티은행, JP모건, 도이체방크, HSBC 같은 대형 상업은행들은 공급망 금융의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8) EU에서는 상업송장을 온라인화하여 대금청구 및 자금지원을 자동화하는 전자송장(E-Invoice) 프로젝트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EBA E-invoicing 2010: European market guide, May 2010.

<[https://www.abc-eba.eu/downloads/knowledge-and-research/E-Invoicing\\_Market\\_Guide\\_2010\\_v1\\_0.pdf](https://www.abc-eba.eu/downloads/knowledge-and-research/E-Invoicing_Market_Guide_2010_v1_0.pdf)>

따라서 공급망 관리가 경쟁관계가 아니라 협동 베이스로 이루어진다면 공급망 금융 역시 협조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파이낸싱 관점에서 공급망 금융을 취급하는 것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거래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의 적시 공급, 회계처리의 지원, 신규투자자 알선 순으로 본다면 자산적·담보적 가치 있는 자산부터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공급망 금융을 새롭게 주목하게 된 것은 외부환경의 변화에서 그 계기를 찾을 수 있다.<sup>9)</sup> 우선 기업의 자금조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담보적 가치가 있는 생산설비와 재고자산, 매출채권을 이용한 자산담보대출(asset-based lending: ABL)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다.<sup>10)</sup> 이미 한국에서는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대금 결제를 앞당기기 위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거래은행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무역결제·금융의 전자화도 상당 부분 진행되어 왔다.

요컨대 한국에서는 공급망 금융이 제조업체의 공급사슬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부분적인 플랫폼 구축<sup>11)</sup>과 함께 협동성(collaboration), 투명성(transparency)에 중점을 두고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Ⅲ. 공급망 금융과 금융기관의 역할

#### 1. 공급망 금융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역할

공급망 금융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역할은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파이낸싱 관점에서 원자재 구매와 생산·판매 등 제조업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협동관계를 중시하면서 전체 공급망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sup>12)</sup> 정보의 부족이나 왜곡은 금융사고를 유발하기 쉽기 때문이다.

9) 日本銀行金融機構局金融高度化センター, “商流ファイナンスに関するワークショップ報告書”, 2014.2, 7~13面 참조. 일본에서는 공급망을 ‘商流’라고 한다.

10) 박환일이창규, “미국식 동산채권담보대출(ABL)의 국내도입 방안”(경희법학 제49권 4호, 2014.12.30) 논문은 미국과 일본의 ABL 현황을 소개한 후 국내 은행의 ABL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1) 무역거래, 통관에 있어서는 uTrade Hub 포털<<https://www.utradehub.or.kr/>>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12) Erik Hofmann, “Supply Chain Finance-some conceptual insights”, 2005, p. 7. <<https://www.alexandria.unis>

아울러 해당 제조업체의 거래은행은 공급망의 조정 및 변경에 따른 파이낸싱 대안을 지체 없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원자재를 동산담보로 하여 신속하게 대출을 해줄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담보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다가 필요시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 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운송 중에 있는 제품에 대해서도 거래기업이 원하면 무역금융, 담보대출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금융지원은 종래 운영자금(working capital) 형식으로 단편적으로 시행하거나 부분적으로 대처해 왔으나 앞으로는 공급망 금융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필요<sup>13)</sup>가 있는 것이다. 이와 연계하여 여신관리 차원에서 기업신용평가를 통해 거래적격업체를 선정하거나 부적격업체를 배제할 수도 있다.

한국에서의 공급망 금융은 위와 같은 통합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리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공급망 금융의 이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산채권담보법과 같은 새로운 법도 만들고 제도개선을 꾀하였으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많은 경우에 공급망 금융의 효율화가 아닌 전자어음제도<sup>14)</sup>와 같이 대기업-중소기업의 양극화에 관한 논쟁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았다.

## 2. 한국에서의 공급망 금융의 실패 사례

기존 방식으로 처리했다가 공급망 금융의 관점에서 실패로 끝난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아울러 효과적인 대처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 (1) 공급망 정보의 미비 - 모뉴엘 사건

모뉴엘은 IT기반의 종합가전회사였다. 2012년에는 세계적인 가전전시회(CES)에서 7개 부문에서 수상을 하고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세계시장 지배력을 가진 히든 챔피언<sup>15)</sup>으로 선정되었다. 로봇청소기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2013년 매

g.ch>

13) 서정호, “중소·창업기업을 위한 공급망 금융 활성화 방안”, 금융연구원, 2015.10,

14) 2014년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의 법인사업자는 전자어음을 발행해야 하며 전자어음 대신 종이어음을 발행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15) ‘히든 챔피언’이란 세계시장 점유율 1~3위이면서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매출액 40억불 이하의



출 1조 원을 달성한 중견기업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2007년 주력 수출상품이던 홈시어터 PC에서 하자가 발견되어 대량 반품이 발생하자 모뉴엘은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반품된 제품을 위장 수출했다. 그리고 수출실적을 바탕으로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한국에서 수출한 완제품을 현지에서 분해하여, 부품을 다시 수입하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부풀려 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의 보증을 받아 금융기관 10곳으로부터 총 3조4천억 원대의 대출을 받았는데 미상환 대출금이 5400억 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승승장구 하던 모뉴엘이 2014년 10월 20일 갑자기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2014년 12월 9일에는 돌연 파산신청을 하였다. 모뉴엘은 미국의 ASI컴퓨터, 중국의 CNBM, 완성과 같은 유수의 기업과 거래를 가장하고 수출하는 형태(수입업체에 고율의 수수료 지급)를 취하였는데 이들 수출채권의 만기가 도래하자 더 이상 거래를 지속할 수 없었던 것이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모뉴엘이 CES에서 수상을 하는 등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것만 보고 신용대출을 해주었다. 모뉴엘이 쓰러지기 직전의 은행권 대출현황을 보면 담보대출 3,860억원(그 중 3,200억원을 무역보험공사가 보증), 신용대출 2,908억원 등 총 6,70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 사건 후 무역보험공사는 1백만불이 넘는 수출계약의 보험을 인수할 때 현장실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은행들도 여신심사를 철저히 하였다면 매출/수출액과 영업이익, 영업현금의 흐름이 비정상적인 것을 미리 탐지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매출액 대비 영업 현금흐름액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0.04%, 0.02%, 0.01%를 기록하고 있어 업계의 평균이 6%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상상할 수 없는 격차를 보였기 때문이다.<sup>16)</sup>

## (2) 금융기관 관리능력의 한계 - 한·중·일 수입화물의 선취보증장 문제

수출업체가 화물을 배에 선적하고 선박회사로부터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을 받은 후 수입업체는 신용장이나 D/A, D/P<sup>17)</sup>에 첨부된 선하증권과 상환하는 조

글로벌 強小기업을 말한다.

16) 모뉴엘은 수출은 많이 함에도 기업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매우 비정상적인 현상을 보여주었다. 금융셀파, “희대의 금융 사기극, 모뉴엘 사태” <<http://blog.naver.com/stationery77/220682500044>>

17) 신용장 없이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引受渡 조건)는 수출상이 발행한 환어음을 수입상이 인수만 하면 선적서류를 인도하여 수입대금을 연지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건으로 대금을 결제하게 된다. 그런데 한국과 중국, 일본 간 교역에 있어서는 화물이 선적서류보다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거래은행은 수입업체가 보세창고료도 절약하고 화물을 먼저 찾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선하증권 지급을 보증한다”는 수입화물 선취보증장(letter of guarantee: L/G)을 발급한다. 수입업체가 선하증권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도 화물을 인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은행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으로 이것은 선하증권의 원본을 인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한편 수입화물대도(trust receipt: T/R)란 수입업체가 수입대금을 결제하기 전에 그에게 물품을 빌려줌으로써 수입업체가 화물을 처분하여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수입화물에 대한 소유권과 담보권은 개설은행이 보유하면서 수입업체에게는 적기에 화물을 처분하여 약정기일에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L/G, T/R의 거래관행과는 달리 선하증권은 법률상의 상환증권(상법 제129조), 처분증권(상법 제132조)으로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이에 의하지 않고 화물을 처분하는 것은 법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대법원판례<sup>18)</sup>에 의하면, 운송인이 화물선취보증장만 받고 화물을 인도하는 이른바 보증도의 상관습은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의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책임을 면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증도로 인하여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보증도를 한다고 하여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운송물을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 된다면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의 주의의무가 감경 또는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은행의 L/G 발급은 선하증권에 표시된 화물과 실제 운송 중인 화물에 차이가 있거나 실제 선하증권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하지 못하게 될 경우 불법행위를 조장할 소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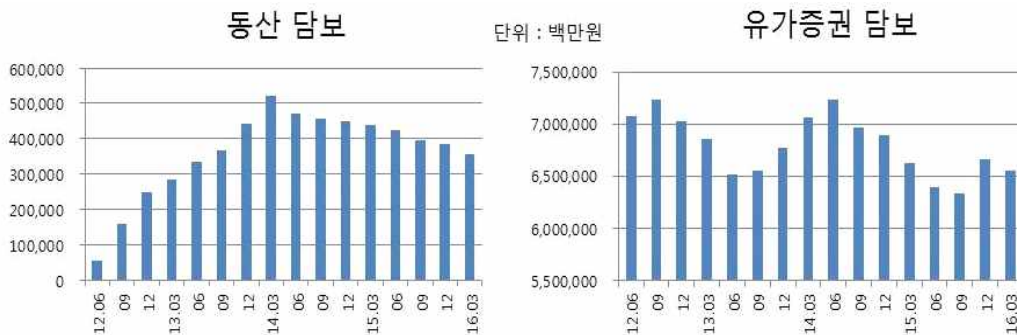
며, D/P (Documents against Payment, 支拂渡조건)는 수입상이 화환어음을 지불하면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18) 대법원 1989.3.14 선고 87다카1791 판결; 대법원 1999.4.23. 선고 98다13211 판결 등.

### (3) ABL에 대한 인식 부족 - 동산 담보대출의 부진

정부는 중소기업이 은행대출을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2012년 6월부터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본격 시행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동산 및 매출채권에 대한 전자등기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럼에도 기대와는 달리 중소기업의 동산·채권을 이용한 담보대출 실적은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그림 2〉에서 유가증권 담보대출은 은행이 국공채, 거래소와 코스닥 주식을 담보로 잡고 대출해주는 것이며, 매출채권에 해당하는 받을어음은 어음할인 방식으로 신용을 공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기업에 대한 담보대출까지 포함한 통계이지만 동산 담보대출 실적이 유가증권 담보대출의 10분의 1에도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은 기업보유 자산가치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2〉 은행권의 유형별 담보대출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http://fisis.fss.or.kr>>

동산 담보대출이 기대한 만큼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우선 기계설비나 재고자산 등 동산은 이동가능성이 많고, 식별하기 어려운 데다 감가상각이 빨라 부동산에 비하면 담보로서 효용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산채권담보법에 의하면 담보목적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전자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RFID<sup>19)</sup> 같은 전자태그를 붙일 수 있다(동법 제17조 1항). 따라서 법원 등기소에 전자등기가 되어 있는 동산담보물에 전자식별표를 붙이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관

19)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란 안테나가 달린 극소형 칩에 정보를 저장하여 물건이나 카드에 부착함으로써 무선주파수를 이용해 비접촉식으로 대상을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을 말한다.

리한다면 개개의 동산담보물에 대한 현황조사는 물론 이를 둘러싼 권리관계를 여실하게 파악할 수 있다.<sup>20)</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산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나 대출을 실시하는 은행들이 전자식별표의 도입을 회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중소기업자들은 이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고 추가 비용부담을 꺼리는 데다, 대출은행 입장에서도 담보관리를 위한 전자식별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sup>21)</sup>

값나가는 담보물에는 비교적 고가인 능동형 RFID 태그를 붙여야 하고, 공장 입구에는 고가의 고정식 RFID 리더기를 설치하거나 휴대용 RFID 리더기를 비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실시간 정보수집을 위한 전용 통신회선도 설치해야 한다. 그러니 소액 대출을 받는 중소기업들은 전자식별표의 도입 자체가 부담스럽다. 은행들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새로 동산담보대출의 기회와 이익(availability)을 얻게 된 중소기업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반대로 중소기업자들은 자금력이 좋은(deep pocket)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단기 소액 대출을 해주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신용대출을 할 수 있는 터에 담보대출 명목으로 금리를 깎아주면서 추가로 담보관리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sup>22)</sup>

#### (4) 중소기업의 공급망 금융 기피 현상

산업단지에서 가동 중인 중소기업들은 소요 원자재를 공동구매할 경우 단가를 낮출 수 있다. 예컨대 조선사들이 대량으로 소비하는 용접봉을 공동구매하는 경우 가격인하의 혜택이 있으므로 거래은행이 공급자에게 지급할 대금을 빌려줄 의사를 밝혔고 공급자도 찬동하였음에도 불발로 그치고 말았다.

여러 기업이 필요한 설비·자재를 공동으로 구입하는 경우 그 대금을 거래은행이 공급자에게 지급(supplier finance)하고 구매 기업들에 대출해 준 것으로 처리한다면 모든 참여자들이 윈-윈하는 공급망 금융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해당 기업

20) 법인이 아닌 상호등기를 한 개인사업자도 동산담보법에 의한 동산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바, 이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보호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19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18조 등.

21) 비용부담이 문제되지 않는 정부물품의 경우 조달청에서는 이미 2007년부터 RFID 태그를 붙여서 관리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물품관리에 있어서도 이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22) 박현일, “동산담보관리와 정보화 제고의 필요성”, 경희법학 제49권 1호, 2014.3.30.

실무담당자들에게는 공급망 관리에 대한 투명성 제고가 영업비밀의 노출, 사적 이익 기회의 박탈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켜 이 문제를 극복하기가 어려웠다.

## IV. 공급망 금융의 활성화 대책

### 1. 공급망 금융의 활성화 요인

앞서 말한 실패 사례를 분석해보면 오히려 공급망 금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공급망 관리의 플랫폼(B2B platform)을 이용하여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운용한다면 공급망에 관한 정보의 사각지대를 피할 수 있고 단계별로 적절한 금융지원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공급망 참가자들 사이에 공유되는 경우 정보의 미비점을 악용한 모뉴엘 같은 금융사기 사건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셋째,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SCF service) 사업을 벌일 수 있다.<sup>23)</sup>

구체적으로 공급망 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은 공급망 금융의 플랫폼<sup>24)</sup>을 구축하고 이용자들이 실감할 수 있는 선순환의 생태계(ecosystem)를 조성하는 일이다. 우선 공급망에 연계하여 공급망 금융의 플랫폼을 만들고 공급망 금융의 이용자들이 실감할 수 있는 선순환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3) 박훤일이창규, 앞의 논문, 108~113면.

24) 플랫폼이란 “다양한 종류의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기반”을 말하는데 스마트폰 앱을 거래하는 아이폰의 애플스토어나 모든 생산을 아웃소싱하고 디자인과 마케팅에 주력하는 나이키를 연상하면 이해하기 쉽다. 공급망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의 관련정보를 올려놓고 이용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선택하게 하거나, 관련 부품과 서비스를 연결·조합하여 복잡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태계로서 운용된다. 공급망 관리에 있어서도 대기업, 은행을 중심으로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가치사슬(value chain)의 상호비교를 통해 제품의 품질 및 서비스를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창업지원을 위한 해외 오픈형 플랫폼 사례분석 및 시사점”, KDB산업은행 조사연구, 2015.10; 노규성, “플랫폼이란 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이러한 공급망 금융의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이용된다면 앞에서 소개한 실패 사례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모뉴엘의 경우 제품의 수출과 수출대금의 결제가 동일한 플랫폼에서 이루어졌다면 공급망 참가자들 사이에 정확한 정보가 공유되는 만큼 사기적 거래는 시도하지도 못할 것이다. 또한 한·중·일 간에 무역관련 서류를 단일 플랫폼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한다면 선적서류와 화물운송의 도달 시차에 따른 문제나 신용장과 실제 운송 중인 화물의 상위 문제 같은 것은 원천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공급망 금융의 플랫폼은 거래 자체가 투명해지므로 원자재의 공동구매도 자연스럽게 추진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공급망 금융의 플랫폼을 통해 관련 당사자들이 거래정보를 통합적으로 운용하고, 거래은행은 해당 기업에 대해 단계별로 단기 운영자금이나 장기 설비자금 또는 투자 등 적절한 파이낸싱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동산채권담보법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적정가치(fair value)를 평가하여 이를 담보로 좋은 조건의 은행대출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담보용 동산을 채권자에게 인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계설비를 기업의 생산활동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완성품과 같이 창고에 쌓여 있는 재고자산이나 농축산물까지도 이를 담보로 하여 자금을 빌릴 수 있으며, 매출채권 또한 ABL의 대상인 유력한 자산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할 때 담보가 되는 자산의 가치가 적정하게 유지되고 유형자산이나 재고자산은 유사시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그 소재지를 파악해 두어야 한다. 매출채권의 경우에도 용이하게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모든 작업을 금융기관이 직접 수행하기는 곤란하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ABL이 발달한 미국의 사례를 보면 ABL 거래에는 여러 유형의 전문 서비스 회사가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5)</sup> 우선 담보물 평가회사(appraiser)는 재고자산 등 담보물의 가치 평가를 수행한다. 그리고 현장 조사회사(field examiner)는 담보물 소재지를 방문하여 매출채권, 재고자산이 제대로 있는

25) 미국에는 종업원을 수 백 명씩 둔 ABL 전문 서비스회사가 전국 각지에서 일정 수수료를 받고 영업 중이다. 최근에 설립된 회사를 제외하면 원래 재고관리·평가·처분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던 업체가 ABL과 관련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예컨대 유통업체 재고평가·처분업을 수행하던 Golden Brothers는 통일상법전(UCC) 시행과 함께 ABL 관련 처분회사(liquidator)로 발전하였다. ABL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은 감정·평가는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현장조사나 처분·정산은 외부 전문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지 조사 확인하며, 담보물 처분회사(liquidator)는 담보물의 경매 주선, 원매자 알선 기타 처분업무를 담당한다.<sup>26)</sup>

이러한 ABL 관련 서비스는 적은 비용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ABL의 가장 큰 목적은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안심할 수 있게 담보목적물을 모니터링하면서<sup>27)</sup> 담보물의 가치와 상태를 정확히 평가·판단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제 때 제 값 받고 처분하여 채권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동성 내지 亡失 가능성이 큰 목적물을 특정하고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사람이 지켜볼 수는 없으므로 그에 적합한 전자식별표를 붙여서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전자식별표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sup>28)</sup>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시계열로 분석해보면 목적물의 공정한 평가도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이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을 적은 비용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공급망 금융의 플랫폼에서 운용한다면 중소기업 대출에 따른 리스크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sup>29)</sup> 특히 이동성이 많고 亡失 가능성이 큰 고가의 담보목적물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능동형 RFID 같은 전자식별표를 붙여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의 NFC기능을 이용한 셀프-체크도 가능할 것이다.<sup>30)</sup>

26) ABL 전문 서비스 회사는 기계설비에 RFID와 같은 전자식별표를 붙임으로써 해당 자산을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 개별 자산이든 집합물이든 목적물을 특정할 수 없다면 그 담보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국에서와 같이 ABL 대상자산별로 감정평가를 하고, 현장에 제대로 있는지 조사를 대행하고, 필요 시 자산을 처분하는 서비스가 뒷받침되어야 은행이 안심하고 ABL거래를 취급할 수 있다.

27) 박훤일, 앞의 논문, 83~86면.

28) RFID와 같은 전자식별표는 휴대용 또는 고정형 리더기로 데이터를 읽어 일정한 양식으로 이를 저장해야 한다. 그러나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채권은행이나 채무자는 전자식별표가 유일무이한 수단임에도 그의 채용을 주저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목적물에 NFC(near field communication) 태그나 QR (quick response) 코드를 붙이고 스마트폰에 이를 스캔하는 앱을 설치한 다음 스마트폰으로 수집(self-check)한 정보를 이동통신망을 통해 채권자 또는 그가 지정한 담보관리인에게 보고한다면 태그 값 외에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을 것이다. 박훤일, 앞의 논문, 84면.

29) 담보물의 관리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여신기능과 물류기업의 재고관리 기능을 접목한 시스템이 주목을 받고 있다. 물류기업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재고를 현장에서 직접 처리해야 하므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만일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바로 점유를 확보할 수 있다. 물류기업은 제3자의 입장에서 재고상황 보고의 허점을 인지하기 어려운 금융기관들에 비해 정확한 재고 파악이 가능하다. 또한 물류기업은 전자태그 등 정보기술(IT)을 활용하여 물류관리를 하고 있어 똑같은 기술을 그대로 ABL의 재고관리 및 모니터링에 적용할 수 있다.

30) 예컨대 공장 책임자가 담보로 제공된 기계설비와 재고자산을 출석 체크하듯이 휴대폰으로 태그하거나 전자식별표를 붙일 수 없는 액체나 벌크성 물품은 휴대폰의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그 데이터를 시계열로 분석한다면 담보물의 이상 유무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 스마트폰을 이용한 동산담보물건의 셀프-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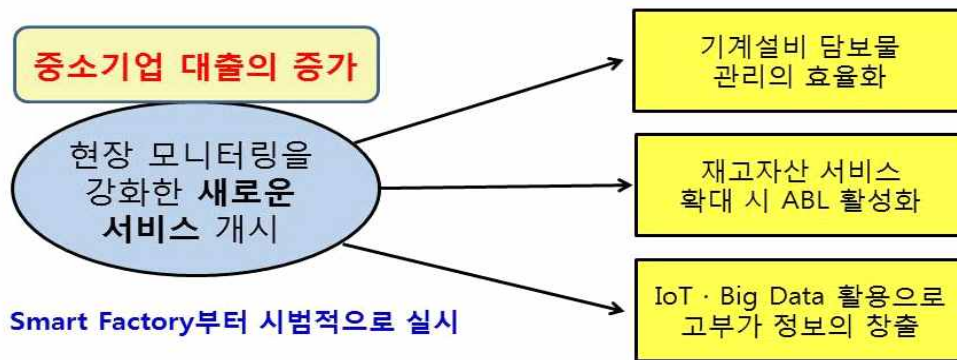
자료: 박원일, "기계(동산)담보 통합관리방안의 연구", 한국기계거래소, 2014.10.21., 66면.

## 2. 공급망 금융의 영역 확장

공급망 금융은 제조업체와 협력업체, 금융회사 간의 네트워크가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연결되어 있다. 공급망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놓는다면 담보물의 공정한 평가, 원매자 물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그 데이터가 좀 더 집적이 되면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반의 물류관리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보다 중요한 공급망 금융 활성화 대책은 앞서 설명한 ABL 관련 서비스와 연계하여 기업신용평가를 통한 레이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 함으로써 공급망 관리의 상대방인 거래적격업체를 선정하거나 반대로 부적격업체를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공급망 금융(SCF)에 대한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홍보 전략을 펼쳐야 한다. 이를 선도할 대표적인 업체를 클로즈업하고, 공급망 금융의 강점과 편익을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많은 기업들에게 전파 보급하면 좋을 것이다.





<그림 4> ABL 도입의 기대효과

한국과 중국, 일본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데다 상호 거래하는 상품도 긴밀한 관계가 있고 정보통신, 금융·법제의 인프라가 비슷하여 공급망 금융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일본에서는 동산을 담보로 할 경우 채권자는 이중양도 가능성을 우려하여 이를 기피하였으나 2005년 10월 「동산 및 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산양도登記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그러한 우려가 불식되었다. 더욱이 금융감독 당국이 검사방식을 개선<sup>31)</sup>하고 동산·채권 담보대출 보증제도가 시행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동산담보대출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sup>32)</sup>

중국에서도 국제무역이 정보통신망과 결합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증가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금융기관들도 공급업체의 수출채권을 매입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팩토링 업무를 늘리고 있으며, 인터넷 금융과 전자결제를 스마트 물류와 결합한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sup>33)</sup>

그러므로 동북아 3국에 통합된 공급망 금융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자상거

31) 일본에서는 2007년 2월 「금융검사 매뉴얼(예금 등 수입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매뉴얼)」이 개정되어 동산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관리 및 평가의 객관성·합리성이 확보되어 환가가 확실하다고 객관적·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산을 일반 담보로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으로서도 동산 담보를 이용하는 인센티브가 많아졌다.

32) 박환일, “기계(동산)담보 통합관리방안의 연구”, 한국기계거래소 용역보고서, 2014.10.21, 44면.

33) 2016년 9월 부산에서 열린 한·중 은행산업 발전방향 포럼에서 중국 교통은행(발표자: 楊敏)은 글로벌 기업에 대한 연계형 금융 서비스의 사례를, 또 건설은행(발표자: 孫劍波)는 산융 비즈니스(善融商務) 같은 전자상거래 기업이 한국 소평관을 개설한 사례를 각각 소개하였다. 은행연합회, “한·중 은행산업의 변화, 혁신 및 발전”, 2016 한·중 은행산업 발전방향 포럼(Korea-China Banking Development Forum), 2016.9.2.

래의 분야부터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공급망 금융의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급망 금융의 플랫폼은 이 지역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모바일 폰으로도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추후에 빅데이터 및 핀테크 활용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어느 나라에서나 신뢰를 얻고 통용될 수 있도록 거래의 투명성(transparency)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sup>34)</sup>

## V. 맺음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공급망 금융을 제대로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전자등기를 기반으로 하는 동산채권담보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도 정착되었다. 최근 상법이 개정되어 금융리스, 매출채권 매입(팩토링) 같은 신종 상행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상세히 규율하고 있다.<sup>35)</sup> 미국에서와 같은 ABL 서비스 대행회사의 설립이 추진되기도 하였다.<sup>36)</sup>

그러므로 실패 사례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급망 금융의 강점과 편익을 홍보함으로써 공급망 금융을 널리 전파 보급하는 일이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되 여건이 서로 비슷한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에서 디지털 단일시장(Digital Single Market)<sup>37)</sup>이 조만간 출현하

34)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에서도 2008년부터 공급망 연결 이니셔티브 사업을 벌여 물류흐름을 저해하는 병목요인을 찾아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요인별 행동계획을 수립하였다.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도 물류분야 규제의 투명성 부족을 해소하는 작업에 적극 참여한 바 있다. 민정웅, 「APEC 내 글로벌 공급망 논의에 대한 대응전략연구」, 2011.11, 75면.

35) 2010.5. 개정상법은 금융리스업은 제168조의2에서 제168조의5까지, 채권매입업은 제168조의11와 제168조의12에 각각 규정을 신설하였다.

36) 필자는 2015년 11월 시화 멀티테크노 벨리에 첨단 시설을 갖춘 기계거래소의 개장을 앞두고 기계(동산)담보 통합관리방안을 연구하여 한국기계거래소에 제출(각주 32) 참조)하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동산채권담보법 시행 초기 단계의 2400여 업체에 대한 동산담보물 취급건수가 5만 건에 이를 때까지는 각 은행이 자체 관리하거나 신용정보회사와 업무제휴를 맺어 처리하도록 하고, 취급건수가 5만 건을 넘어서면 은행권 공동의 담보관리기관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금감원 보도자료, “동산담보대출제도 도입 후 1년간의 실적 및 향후 활성화 방안”, 2013.8.26. 참조.

37) 디지털 단일시장은 본래 EU가 역내 디지털 마케팅, 전자상거래 시장을 통합하기 위해 2015년 5월 제안한 사업구상이다.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digital-single-market>> 한중일 3

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들 세 나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모바일 폰을 가지고 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장차 빅데이터와 핀테크 활용을 전제로 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IT기반의 공급망 금융을 성공시킬 수 있는 관건이라고 하겠다.

---

국도 디지털 단일시장 구축을 위해 7대 국경장벽인 전자결제, 전자화폐, 관세국세, 표준제정, 원산지 정립, 정품인증, 통합물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한국전자무역상거래진흥원이 이 사업을 맡아 하고 있는데,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전담하는 주체로 진흥원과 3국의 공영 언론사가 주축이 되어 `한·중·일 메가플랫폼`을 2017년 중 설립할 계획이다.

## 참고문헌

- 노규성, “플랫폼이란 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 민정웅, 「APEC 내 글로벌 공급망 논의에 대한 대응전략연구」, 2011.11.
- 박현일, “동산담보관리와 정보화 제고의 필요성”, 경희법학 제49권 1호, 2014.3.30.
- \_\_\_\_\_. 이창규, “미국식 동산채권담보대출(ABL)의 국내도입 방안”, 경희법학 제49권 4호, 2014.12.30.
- \_\_\_\_\_, “기계(동산)담보 통합관리방안의 연구”, 한국기계거래소 용역보고서, 2014.10.21.
- 서정호, “중소·창업기업을 위한 공급망 금융 활성화 방안”, 금융연구원, 2015.10,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동산담보대출제도 도입 후 1년간의 실적 및 향후 활성화 방안”, 2013.8.26.
- 금융셀파, “희대의 금융 사기극, 모뉴엘 사태” <<http://blog.naver.com/stationery77/220682500044>>
- 은행연합회, “한·중 은행산업의 변화, 혁신 및 발전”, 2016 한·중 은행산업 발전방향 포럼 (Korea-China Banking Development Forum), 2016.9.2.
-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창업지원을 위한 해외 오픈형 플랫폼 사례분석 및 시사점”, KDB산업은행 조사연구, 2015.10.
- 日本銀行金融機構\局金融高度化センター, “商流ファイナンスに関するワークショップ報告書”, 2014.2.
- Erik Hofmann, “Supply Chain Finance—some conceptual insights”, 2005. <<https://www.alexandria.unisg.ch>>
- EBA Supply Chain Working Group, Supply Chain Finance: EBA European market guide (Version 2.0), June 2014. <[https://www.abe-eba.eu/downloads/knowledge-and-research/1406\\_EBA\\_Supply\\_Chain\\_Finance\\_European\\_Market\\_Guide\\_Second\\_edition.pdf](https://www.abe-eba.eu/downloads/knowledge-and-research/1406_EBA_Supply_Chain_Finance_European_Market_Guide_Second_edition.pdf)>
- EBA E-invoicing 2010: European market guide, May 2010. <[https://www.abe-eba.eu/downloads/knowledge-and-research/E-Invoicing\\_Market\\_Guide\\_2010\\_v1\\_0.pdf](https://www.abe-eba.eu/downloads/knowledge-and-research/E-Invoicing_Market_Guide_2010_v1_0.pdf)>
- Global Partnership for Financial Inclusion, “G20 Action Plan on SME Financing”, Ankara, Turkey, 2015. <<http://www.g20.org/English/Documents/PastPresidency/201512/P020151228341855289327.pdf>>
- Council of Supply Chain Management Professionals, <<https://cscmp.org/supply-chain-management-definitions>>
- Euro Banking Association <<https://www.abe-eba.eu>>
-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Supply\\_chain](https://en.wikipedia.org/wiki/Supply_chain)>
- (이상 웹사이트는 2016.10.28. 최종접속)

Korean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ial Law,  
vol. 9 no. 2, November 2016

<ABSTRACT>

## Supply Chain Finance in Northeast Asia

Whon-il Park

In Korea, the concept “supply chain management” has increasingly attracted entrepreneurs. But the supply chain finance (SCF) has failed to make bankers get interested in such topics. As a matter of fact, its apparatus has been set in motion. For example, the legislation which allows SMEs to use machinery and equipment in use as security for additional financing has been enforced with relevant electronic registration of collateralized assets. Also SMEs’ accounts receivable to be paid by big corporations become the security basis for their banks to make online loans to such suppliers available in place of proceeds to be paid by buyers. The recent amendment of the Commercial Act included provisions of financial lease, franchise and factoring which are usually favored by SMEs.

However, bankers’ lackluster response to supply chain finance would be changed into enthusiasm by taking advantage of supply chain platforms which enable financiers to have access to related information on a consolidated basis. For example, the financial scandal caused by Moneual was enlarged to unprecedented damages to lenders because of some blind spots in the *ex post* management of loans. Sharing necessary data information among such platform users including manufacturers, suppliers, banks, transporters, etc. is supposed to prevent unfaithful participants from committing fraud or breach of contract. Timely advice on financial assistance could be available to clients in need. Furthermore, brand new services will emerge to meet needs for proper appraisal and monitoring service of new types of security.

To this end, an appropriate SCF platform should be in operation to make a virtuous cycle of ecosystems among supply chain participants. Manufacturers, suppliers, banks, etc. participating in the platform may exchange data and information necessary to seek and discuss

new business chances and financing schemes. In the long run, a U.S. type of asset-based lending (ABL) could be used by banks and SMEs with timely services of appraisers, field examiners and liquidators.

If necessary, active/passive RFID tags as well as smartphone-based NFC tags may be used to identify and monitor collateralized assets by creditor-banks. The resultant database will be utilized for fair assessment of security and search for would-be buyers of such collateral to be liquidated. If such databases are accumulated on a nationwide IoT basis, additional profit will be created by big data-based logistics and other services.

Corporate credit rating would be necessary for such SCF platform to be properly operative.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SCF platform, it should be accessed and managed by mobile phones. Collaboration among SCF participants, and their extension to big data and fintech services will be inevitable. South Korea, China and Japan have experienced similar developments of supply chain finance and related infrastructure. In order to establish the combined Northeast Asian digital single market, the efficiency in cross-border provision of SCF-related services and transparency in transactions are in greater need than ever before.

---

Key word : supply chain management, supply chain finance (SCF), SMEs, collaboration, SCF platform, asset-based lending (ABL), electronic identification tag, Northeast Asian digital single market

---